

문화방송노보

무단협1673일째
지명파업500일째

발행인 김연국
편집인 허유신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8월 16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MBC 블랙리스트, 고영주가 지시했다!

“노조원은 잔여 인력 · 유휴 인력”



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다”며 “앵커로도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나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김광동이 사도 “전체 맨파워가 그것(조합원 배제)을 버텨낼 정도가 되냐”고 거듭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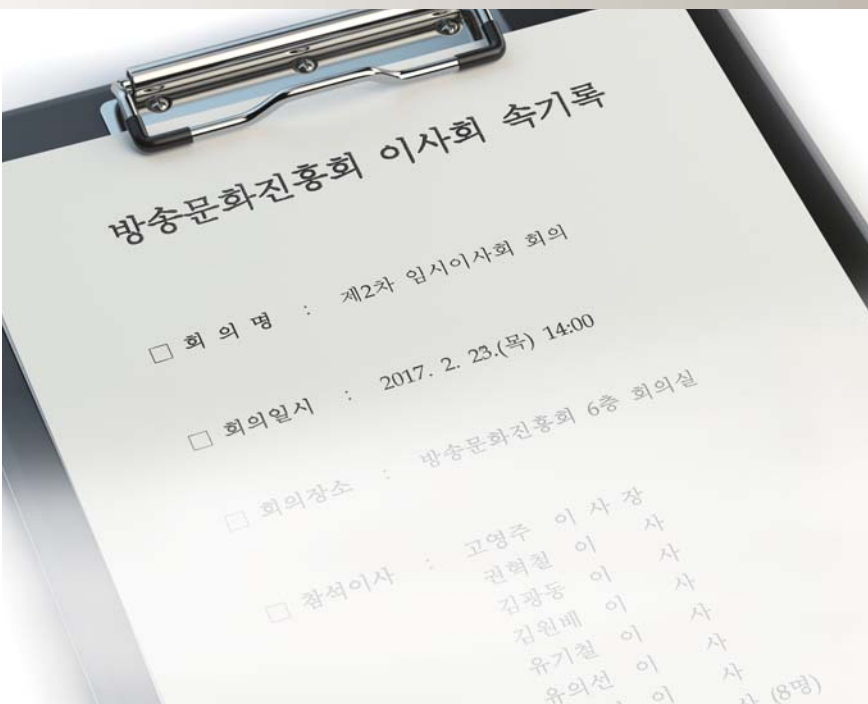
답변에 나선 사장 후보 권재홍은 “경력기자 중에도 앵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뉴스테스크>를 하는 기자들은 90%가 비노조원, 경력기자”라며 “검찰팀이 9명인데 검찰팀에 1노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상한 기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라고 취재기자 대상 ‘블랙리스트’의 성과를 과시하기도 했다. 다른 사장 후보인 김장겸 역시 “저는 (사람을 쓸 때) 과거의 히스토리를 주로 봅니다”라고 밝혀 노조 소속 여부나 파업 참가 이력 등을 살펴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을 ‘유휴 인력’ ‘잔여 인력’ 등으로 표현하며 향후 관리 방안 등을 물었다. 권재홍은 “유휴 인력들을 경인지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보내 놓았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보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안 될 사람들은 다른 데로 배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라며 “그런 자리(유배지)는 충분히 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유배지 인사가 회사 안팎의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사측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인력을 배치했다’고 변명했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방문진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은 MBC 전현직 경영진과 공모해 노동조합 조합원을 편향된 이념집단으로 매도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음을 자백했다. 이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에 부당하게 개입한 방송법 위반 행위이다. 사실상 MBC 전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한 중대 범죄 행위이다.

지난 2월 사장 후보자 면접은 사실상 중대 범죄행위의 지시, 실행을 함께 모의한 자리였다. 이에 관련한 자들은 모두 공영방송 이사과 사장으로서 부적격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범죄 행위를 모의한 자리에서 이뤄진 김장겸 사장 선임은 원천 무효이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고영주 등 문제 인사들을 해임하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범법자들을 기소하라.

〈관련기사 2~7면〉



2월 ‘사장 면접 속기록’ 입수

지난 2월 23일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사장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김장겸을 사장으로 최종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의 낙점을 받은 김장겸을 일찌감치 사장으로 찍어놓고 요식 행위로 진행됐다. 구야권 추천 이사 3명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고, 구여권 추천 이사 6명만 참석한 회의였다. 노동조합은 이날 사장 후보자 면접이 진행된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발언들이 확인됐다.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들과 사장 후보자들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모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고영주 이사장은 MBC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총지휘, 지시, 관리, 감독한 주범임이 드러났다. 블랙리스트 폭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블랙리스트의 진짜 배후가 드러난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들의 불법 행위 자백을 낱알이 폭로한다.

고영주 등 방문진 이사들은 우선 노조원들의 업무 배제를 노골적으로 지시했다. 이른바 ‘유배지’로 쫓겨나지 않은 조합원들도 최대한 주요 업무에서 제외할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

■ 방송문화진흥회 제2차 임시이사회 속기록 (발췌)

2017년 2월23일 개최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2월23일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주요 의제는 MBC 신임 사장 후보 최종 3인(김장겸·권재홍·문철호)에 대한 면접과 프리젠테이션이었다. 노동조합은 당시

이사회 속기록을 최근 입수했다. 방문진 이사들과 사장 후보들의 발언 중 노동관계법 등 현행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거나 노조 파괴 의도, 정치적 편향성 등이 심각한 일부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유익선 이사

많은 인력이 노조 가입 등등해서 편향된 제작물을 가져온다거나..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아주 오랜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극복하시겠습니까?

권재홍 MBC 사장 후보

지금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PD도 있고 기자가 있는데 PD들이 만드는 것은 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도 방향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득해서 저널리즘 가치를 지켜라, 설득을 해서 안 되면 그것은 손을 떼게 해야 합니다. 손을 떼게 하고 빨리 외부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PD들을 뽑아서 자리를 수혈해 나가서 올바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해야지, 지금 계속 <PD수첩>에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60%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것을 계속 감시만 하고, 또 게이트키퍼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경력사원 뽑을 때 PD들도 한 20명 뽑아야 한다, 그리고 요즘 케이블, 종편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방법 아니고서는 솔직히 말해서 언론노조가 전면 파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도국에 뽑아 놓은 경력기자들이 그나마 중심 잡고 온갖 수모 겪으면서도 일하고 있고, 자기들이 파업하면 오히려 뉴스가 더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계속 인력 보강을 해서 메울 수밖에 없다, 저는 설득을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익선 이사

기존의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권재홍 MBC 사장 후보

저는 기존의 인력은 미래방송연구소도 있고,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있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을 나가는 그런 조직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

고영주 의장

우리 방문진에서 MBC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궁금

해서 그러는데, 이럴테면 앵커로도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나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재홍 MBC 사장 후보

언론노조 말고요?

고영주 의장

예. 이럴테면 보도본부...

권재홍 MBC 사장 후보

경력기자나 3노조원들...

김광동 이사

전체 매파워가 그것을 버텨낼 정도가 되냐...

고영주 의장

부사장님께서서는 그런 사람은 앵커로도 내세우지 말아야 하고...

권재홍 MBC 사장 후보

그렇지요. 앵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영주 의장

글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인지, 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권재홍 MBC 사장 후보

경력기자 중에도 앵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이렇게 (기존 기자들을) 쓰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눈치보기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것은 진짜 비공개니까, 그렇게 뽑아서 앵커를 시켰으면 당연히 노조 탈퇴하고 앵커가 정말 중립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데 (노조) 탈퇴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앵커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앵커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서서 리포트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3노조 경력기자를 떠나서 조직 관리를 저렇게 해서 되겠나? (중략)

고영주 의장

아까 간단하게 비례를 말씀하셔서 65:35인가 이랬으면 일하는 조직이 35명이면 일을 잘 하지 않고 비협조하는 사람들이 65% 된다는 취지로 말씀...

권재홍 MBC 사장 후보

그것이 아니고 언론노조 조합원이 65%이고, 경력기자나 3노조 조합원이 35%입니다.

고영주 의장

결국 그 취지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35%이고, 1노조 중에서도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재홍 MBC 사장 후보

1노조 중에도 리포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 하는 기자들은 거의 90%가 다 비노조원, 경력기자들입니다.

고영주 의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잔여 인력을 아까는 어디어디에 보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랬으면 그렇게 이념이나 성향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잔여인력을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권재홍 MBC 사장 후보

제가 부사장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도저히 보도 쪽에는 쓸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래서 뉴미디어 포맷개발센터로 보내고...(중략)

마이크 잡고 글을 쓰는 것 말고 여러 군데 직무를 개발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서 연구소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중략)

고영주 의장

잔여 인력을 그런데다가 배치를 하면 이랬으면 보도하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는지, 엇그제 <PD수첩>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지...

권재홍 MBC 사장 후보

우리가 보도인력의 전체 모든 인력을 3노조나 경력기자 중심으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더 뽑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뉴스데스크>의 모든 리포트를 경력기자나 가치관이 똑바른 기자들이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그런 인력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검찰팀이 9명인데 검찰팀에 1노조는 하나도 없다. 전부다 경력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상한 기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조직에서는 꼭 일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고영주 의장

유휴 인력을 어디 쓸 데가 있으면 부사장님 말씀대로 참신한 경력기자들을 많이 뽑아서 일을 시키면 되는데 그 유휴인력을 해고할 수도 없고 원로원처럼 모셔놓을 수도 없고...

권재홍 MBC 사장 후보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유휴 인력들을 경인지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보내놓았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보냈습니다. 언론노조 조합원 중에서도 정말 보도 쪽에 일을 하기 힘든 그런 강성 조합원들은 다른 일을 하도록 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주요 포스팅에 쓸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모든 조직을 안정적으로 보도를 정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려면 계속해서 더 뽑아서 안 될 사람들은 다른 데로 배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는 충분히 더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 후보 '문제 발언'

✓ 편파 왜곡 보도, 노조원 격리 배제 시사

- 정말 안의 내부에서는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고영태 녹취파일이 나갈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냥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 객관성, 독립성, 불편·부당성을 천명하고, 여론으로 위장한 선동과 선정적 내용을 옮기지 않고 거짓으로부터 참을 가려내는 보도에 주력하겠습니다.
- (유의선 : 정말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저는 (사람을 쓸 때) 과거의 히스토리를 주로 봅니다. 이 양반이 회사를 여태까지 쪽 다니면서 어떻게 했는 지 몇십 년...

✓ PD 저널리즘 폼하

- PD의 시사 문제 다루는 것을 PD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이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시사제작국을 보도본부 산하로 끌고 온다는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PD들은 시사프로그램을 못 한다, 하지 말라고 하면 난리가 날 테고, 그러나 하여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것이니까 살피주십시오.

✓ 인지부조화(?)

- 지금은 이렇게 골이 깊어졌지만 보도 부문에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저를 반대하는 친구들도 제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친구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주 블랙리스트’ 이렇게 실행

고영주와 권재홍의 이날 대화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직종이 뉴스 앵커와 기자다. 고영주가 먼저 묻는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을) 앵커로도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할 여력이나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사장님께서서는 그런 사람은 앵커로도 내세우지 말아야 하고…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인지, 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노조원을 앵커에서 배제하라

권재홍은 고영주의 지적에 이렇게 답한다. “그렇게 뽑아서 앵커를 시켰으면 당연히 노조를 탈퇴하고 앵커가 정말 중립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데 탈퇴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앵커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앵커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서서 리포트하고…”

당시 주말 <뉴스데스크> 박상권, 이정민 앵커는 조합원이었으며, 이들은 2016년 12월 11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MBC 편파보도에 항의해 자진 하차했다. 또 MBC 편파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 동영상을 올렸던 막내 기자 3명이 징계 절차에 회부되자, 2017년 1월 10일 <뉴스투데이> 박재훈 앵커는 MBC기자협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이를 비판하는 공개 동영상에 출연했다.

권재홍은 곧바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친구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끌어와서 이쪽 세력화하겠다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쁘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김소영 아나운서 배제, 앵커 80%가 비조합원

이들 대화에 등장한 앵커들 얘기는 마치 일탈 사례처럼 언급됐지만, 고영주의 ‘지적’과 ‘지시’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김장겸 사장 선임 이후 더 노골화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일 퇴사한 김소영 아나운서다. 조합원인 김소영 아나운서는 지난해 10월 <뉴스투데이> 앵커에서 경질됐다. 뿐만 아니라 경질 이후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10개월간 방송을 아예 맡지 못했다. 김장겸 사장 선임 이후 예능과 라디오 부문 PD들이 김소영 아나운서의 스케줄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 차례 아나운서국에 “김소영 아나운서를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거나 활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은 이를 묵살하거나 거부했다. 명백한 ‘블랙리스트’이다.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동호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앵커 부문은 “노동조합원 현업배제”가 가장 철저히 이뤄진 곳이다. 2017년 8월 현재 <평일 뉴스데스크>, <주말 뉴스데스크>,

〈평일 뉴스투데이〉, 〈주말 뉴스투데이〉, 〈이브닝뉴스〉, 〈생활뉴스〉, 〈뉴스M〉, 〈뉴스24〉, 〈정오뉴스〉, 〈주말뉴스〉 등 MBC TV 뉴스 앵커 15명 중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조합원이 앵커로 기용된 경우는 〈주말 뉴스데스크〉와 〈뉴스24〉 〈주말뉴스〉의 여성 아나운서 3명뿐이다. 12명이 비조합원으로 채워졌다.

“중요한 리포트”에서 배제하라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국회와 정당, 검찰과 법원 등 이른바 보도국의 ‘주요 출입처’에서도 조합원들은 100% 배제됐다. 권재홍은 이날 면접에서 “검찰팀 기자가 9명인데 검찰팀에 1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경력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상한 기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조직에서는 꼭 일이 터지게 돼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실제로 8월 현재 청와대와 국회 취재를 담당하는 정치부 기자 16명 중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은 단 1명도 없다. 검찰과 법원 등 사회1부 법조팀 기자 7명 중에서도 조합원은 단 1명도 없다. 이런 노골적인 현업 배제는 2013년 5월 김장겸이 보도국장에 임명된 이후 본격화된 것이다. 조합원 1~2명 정도가 간혹 국회 취재나 법조팀 취재에 배치되긴 했지만, 김장겸은 이후 4년 여동안 주요 출입처 취재·리포트에서 조합원을 계속해서 쫓아냈고, 90%이상을 3노조 소속 또는 비조합원으로 채워 넣었다.

권재홍도 이를 인정한다. 고영주가 “잔여 인력을 그런 데에다가 배치하면 이룰테면 보도하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아예 ‘100% 현업 배제’ 방침을 천명했다. “1노조 중에도 리포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하는 기자들은 거의 90%가 다 비노조원, 경력기자들입니다. 우리가 보도인력의 전체 모든 인력을 거기다가 투입 할 수 없는, 3노조나 경력기자 중심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력기자들) 더 뽑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뉴스데스크>의 모든 리포트를 경력기자나 가치관이 똑바른 기자들이 만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PD수첩〉 '탄핵편' 프로그램 내용도 간섭

방문진 이사와 사장 후보자가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노골적인 검열과 개입을 서로 ‘약속’하는 ‘방송법’ 위반 발언도 속속 등장한다. 권재홍이 이날 모두 발언에서 “같은 MBC인데 보도(뉴스데스크)와 <PD수첩>이나 <2580>의 논조 가치가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엿그제(2월 21일) 발생한 <PD수첩>의 불공정 방송 논란도 바로 이런 난맥상 때문에 나왔습니다”라고 주장한다.

2월 21일 방송된 <PD수첩>은 ‘탄핵, 불붙은 여론전쟁’ 편이었다. 탄핵정국이 한창일 때, 탄핵반대집회 측 일부 참석자들이 금

품을 받고 집회에
령을 발포하라'라는
봉으로 반대의견을
했다. 이런 모습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불가”라고 말했다.

고결국 내용이 크
그런데도 이날 고

당한 ‘지적’을 한다
있는데 태극기 집회
작설을 주장한 것
해고감이지요. 그것
야 합니다.”라고 답
김장겸 역시 “조작
시키겠습니다”라고

그러나 이는 방송
었다. 57분 30초쯤
성의 인터뷰)는 노
기가 돌보는) 노숙
회에 동원된다”는
로 받았다는 남성의
문진 그 누구도 확

고영주 지시 검열 강화

사실을 허위로 둔
램 제작진에 대한
김장겸 사장 취임
곧바로 조합원인
로 무더기로 쫓겨

동시에 사전 검열
한다. 시사제작국장
일만의 인양' 리포
밝혀져야 한다"는
연을 지적하는 인터
이라는 단어도 아
용하지 않으면 불
호, 101분의 기록'
라는 지시를 내렸

제작거부 사태는
노조 소속 조합원이
수 없다"는 조창호
과 위법 부당노동행
해고감"이라고 선
리고 이의 실행을

생뻤다

참석했다는 증언이 취재 결과 확보됐다. ‘계엄’은 과격한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태극기 가진 사람들을 찌르거나 구타하는 일도 빈번히 카메라에 담기자 당시 박용찬 시사제작국장은 “편향됐다”며 크게 화를 냈고 “이대로는 방송에 박용찬은 찬반입장의 기계적 중립을 요구했”에 수정됐다.

고영주는 권재홍과 김장겸 면접에서 잇따라 황다. “인터뷰에 나온 사람이 세월호 리본을 달고 회에 돈 받고 나간 것처럼 발언했다”고 방송조이다. 그러자 권재홍은 “명백한 보도조작이고 은 빨리 조사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밝혀내 한다. 같은 지적이 김장겸 면접에서도 나왔고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한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한 망언이 에 등장하는 해당 인터뷰(세월호 리본을 단 남 숙인들을 돌보는 한 목사의 인터뷰였다. “(자 인, 일부 탈북자 등이 일당을 받고 탄핵반대 집 목격담 인터뷰였고, 뒤이어 그런 제안을 실제 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방 인하지도 정정하지도 않았다.

이후 시사프로 조합원 대거 배제,

갑시킨 이날 대화를 계기로, 시사보도 프로그램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노골화되기 시작한다. 이후 <시사매거진2580> 부장이 전격 경질됐다. 전 기자 5명이 뉴미디어뉴스국과 중계팀 등으로. 블랙리스트가 또 한 번 작동한 것이다. 월 등 제작 자율성 침해 사태가 빚어지기 시작 조창호는 <시사매거진2580> ‘세월호, 1073 트에서 “세월호에 대한 의혹과 비밀은 앞으로 기자의 팽목항 현장 멘트를 교체하고, 인양 지 보도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기사에서 ‘진실’ 에 빠라는 황당한 지시까지 내렸다. 지시를 수 상하겠다는 압박까지 했다. 또 <PD수첩> ‘세월 편에서도 ‘국가’와 ‘청와대’라는 말을 삭제하 다. 이런 사례는 최근까지 수없이 반복됐다.

바로 여기서 촉발됐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 기 때문에 민주노총 위원장 관련 아이템을 할 와 편성제작본부장 김도인 등의 제작진 탄압 영위의 윗선에는, “진상조사를 하겠다” “명백한 언하고 맹세한 김장겸과 권재홍이 있었다. 그 감독, 관리한자가 바로 고영주였다.

“잔여 인력은 경인지사, 구로로”

“노조원은 유휴 인력·잔여 인력” 불법 행위 자백

이날 사장 후보 면접에서 ‘고영주 방문진’과 임원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자백했다. 노조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유배지로 보내는 범죄 행위의 계획과 실행을 함께 모의하고 자백하는 자리였다. 사장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이 ‘노조 탄압’의 책임자임을 과시했고, 고영주 이사장과 김광동·유의선 이사는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배제와 격리를 노골적으로 지시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노조원들을 ‘잔여 인력’, ‘유휴 인력’이라고 표현했다.

“잔여 인력은 경인지사, 구로로”

고영주는 권재홍 후보자에 대한 면접에서 “유휴인력을 해고할 수도 없고, 원로원처럼 모셔놓을 수도 없고…”라고 말했다. 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할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것이다. 권재홍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유휴인력들을 경인지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보내놓았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보냈습니다”라고 답했다. 경인지사(현 문화사업국)를 이른바 ‘유배지’로 활용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고영주는 “그렇게 이념이나 성향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까? 잔여인력을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이라고 거듭 물었다. 권재홍은 “부사장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인사 책임자인 부사장이 노조원 배제와 격리라는 범죄 행위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권재홍은 또 “도저히 보도 쪽에는 쓸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래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구로)로 보내고… 연구소 같은것도 만들 수 있고…”라고 덧붙였다.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2014년 10월 말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급조된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격리 사무실이다. 회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업무의 필요에 의해 만든 부서이며 유배지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권재홍의 자백으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권재홍은 ‘연구소 같은’ 유배지를 추가로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미래방송연구소도 있다” 상암내 유배지도 시인

상암동 바깥 뿐만 아니라 상암사옥 내 유배지

도 시인했다. “기존의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라는 유의선 이사의 질문에 권재홍은 “저는 기존의 인력은 미래방송연구소도 있고,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있고…”라고 답했다. 상암동 내에도 미래방송연구소 같은 사실상의 유배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당시 부사장인 권재홍 스스로 밝힌 셈이다.

사측의 폭력적인 부당전보 발령들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성이 입증됐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인지사와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쫓겨난 기자와 PD들이 상암으로 복귀하는 등 법원은 여러 차례 사측의 전보 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장겸 등 전 현직 경영진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전보 발령을 강행하는 등 사법부를 무시하는 반복된 범죄 행위로 일관했다.

경력 사원 채용은 노조원 대체용

권재홍은 이어 “보도를 정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려면 계속해서 (경력기자들) 더 뽑아서 (일을 시키면) 안 될 사람들은 다른 데로 배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자리를 충분히 더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 사장만 시켜주면 고영주와 김광동, 유의선의 ‘지시’에 따라 노조원들을 계속 배제하고 격리 시키겠다는 충성 서약을 한 것이다.

그는 또 “언론노조가 전면 파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라며 “자기들이 파업하면 오히려 뉴스가 더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계속 인력 보강을 해서 메울 수밖에 없다, 저는 설득을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번에 저희가 경력사원 뽑을 때 PD들도 한 20명 뽑아야 합니다”라고도 주장했다. 계속되는 경력 사원 채용이 사실상 노조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다.

PD와 기자들의 제작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장겸 사장은 불법 대체 인력 채용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분노한 카메라기자 50명과 보도국 취재기자 80여명이 제작중단에 나서자 사측은 지난주 잇따라 취재기자과 카메라기자 채용 일정을 공고했다. 이제 이들의 계속된 범죄행위를 중단시킬 때가 왔다.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면, 끌어내리고 법정에 세워야 한다.

충성 요구는 왜 권재홍에게 집중됐나?

김장겸 사실상 사전 내정, 면접은 요식 행위

고영주·김장겸 일당이 노조 탄압과 배제, 격리 등 노동법 위반 범죄행위를 모의한 자리는 차기 MBC 사장을 결정하는 최종 면접장이었다. MBC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문진의 고영주·김광동·유의선 이사는 노조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유배지로 격리시키라고 지시했다.

사장 후보자 권재홍은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권 책임자였다. 보도본부장이었던 김장겸은 보도 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조직을 파괴한 실행자였다. 그런데 면접 녹취록을 보면 노조원 배제와 격리 지시는 권재홍에게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김장겸 면접에서는 ‘신규 콘텐츠 개발과 엔터테인먼트 약점 극복’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 주제였다. 왜 김장겸보다 권재홍에게 이런 주문이 집중된 것일까?

지난 2월 임기 3년의 차기 MBC 사장은 사실상 김장겸 내정설이 파다했다.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헌법재판소의 평결을 기다리고 있던 박근혜 청와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김장겸 MBC를 낙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후 구속된 정호성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방문진 김광동 이사를 통해 ‘오더’를 내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같은 청와대의 지령을 충실히 수행했다. 따라서 이날 진행된 후보자 최종 면접은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불안했던 권재홍은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겠다는 충성 서약에 매달린 반면, 김장겸은 상대적으로 매우 여유있는 태도와 안전 제일주의 발언으로 시간만 때운 것으로 보인다.

김장겸 발언은? “치열한 전쟁, 고영태 녹취 어렵게 내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겸의 몇몇 발언들이 나왔다. 김장겸은 프리젠테이션 모두 발언에서 “어론으로 위장한 선동과 선정적 내용을 옮기지 않고 거짓으로부터 참을 가려내는 보도에 주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일견 그럴 듯한 말이지만, 김장겸이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사상 최악의 왜곡, 편파, 축소 보도를 지휘했다는 점에서, 이는 자신의 극단적인 편향성을 포장한 발언이다. 김장겸은 실제로 “내부에서는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고영태 녹취파일이 나갈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냥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최순실 게이트 왜곡 보도 지휘 사실을 자랑삼아 떠벌리기도 했다.

“시사제작국 보도본부로 끌고 오겠다” PD 저널리즘 폄하

김장겸은 또 “PD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

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시사제작국을 보도본부 산하로 끌고 온다든지...”라고 말했다. 시사교양국을 해체한 것도 모자라 PD들에게서 아예 시사프로그램을 빼앗아 비판과 감시 기능을 거세시키겠다는 발상이었다.

편향적 이념과 평가르기

인지부조화(?)도 엿보인다. 권혁철 이사가 ‘(사장 후보로서) 소통이나 융합 등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장겸은 “보도 부문에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저를 반대하는 친구들도 제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친구라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그를 아는 동년배 동료 기자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 답은 다음과 같았다. “뉴스에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초년 기자 때부터 사내 정치, 사내 정보에 밝았다.” “계속 정치부를 지망했다. 정치부가 아닌 곳으로 발령나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왜곡된 시선을 뉴스에 그대로 반영한다. 기자 개인이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힘을 갖고 나니 뉴스가 저 꼴이 난 것이다.”

김장겸의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이념은 인사에서 평가르기로 이어진다. 유의선 이사가 “박정희 대통령도 사람을 잘 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장겸은 “저는 (사람을 쓸 때) 과거의 히스토리를 주로 봅니다”라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했거나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들을 계속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용마 기자 캐유를 지원하는 응원게좌

하나은행
예금주

850-910016-27704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고영주·김장겸 등 공모’ 명백한 범죄 행위·해임 사유

방송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 명예훼손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김광동·유의선 이사, 권재홍 당시 부사장 등의 망언(妄言)은 방문진 이사, MBC 임원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범죄행위다. 이들의 실정법 위반 행위들을 분석했다.

노동조합법, 형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고영주 이사장은 MBC 사장 후보자에게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앵커로도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할만한 여력이나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까”며 확인 질문까지 했다. 김광동 이사도 “전체 맨파워가 그것을 버텨낼 정도가 되냐”고 실행 방법을 확인한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배제와 격리 대상인 ‘블랙리스트’로 규정해 불이익을 가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81조 1항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에 의거해 권재홍은 부당노동행위 정범, 고영주와 김광동은 부당노동행위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방송법 위반 (편성 개입)

이는 동시에 방송법 위반 행위이기도 하다. 조합원들에 대해 앵커는 물론 “주요한 리포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은 언론노조 조합원이 취재·기사 작성한 권력비판, 사회감시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명백한 방송내용 간섭이기 때문이다.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고(제4조 2항)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제105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고영주는 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잔여인력을 아까는 어디 어디에 보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그렇게 이념이나 성향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 현업 배제 지시로, 부당노동행위이자 방송편성에 관한 규제 및 간섭이며 방송법 위반이다.

고영주 뿐만 아니다. 유의선 이사도 이날 회의에서 권재홍을 향해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PD보다는 기자가 주도하고 PD가 보조하는 게 맞다”며 “많은 인력이 노조 가입 등등해서 편향된 제작물을 가져온다거나 또는 합법적인 파업 등등(으로)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역시 방송편성 간섭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업무방해)

당시 MBC부사장 권재홍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권재홍은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 PD들은 손을 떼게 해야 한다. 손을 떼게 하고 빨리 외부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PD들을 뽑아서 자리를 수혈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발언한다.

또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 PD들이 만드는 것은 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도 방향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 “언론노조가 전면파업을 못하는 이유는 보도국에 뽑아놓은 경력기자들이 있기 때문...그런 면에서는 계속 인력보강을 해서 (언론노조 조합원 자리를) 메울 수밖에 없다. 저는 기존의 인력은 미래방송연구소도 있고,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있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을 나가는 그런 조직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간다.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일뿐더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된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이같은 행위들은 모두 기자와 PD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방문진 이사 명백한 해임 사유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위법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방송을 사유화하고 부당노동행위 등 범죄행위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모의하고 또 자인한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방문진 이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명백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차원을 넘어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또한 이런 범죄 모의를 통해 공영방송 MBC사장을 선출한 과정 또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이런 범죄 행위자들을 MBC의 이사장과 이사, 사장 자리에 계속 둘 것인가?

〈공범자들〉 홍보대사! 김장겸·김재철·안광한·백종문·박상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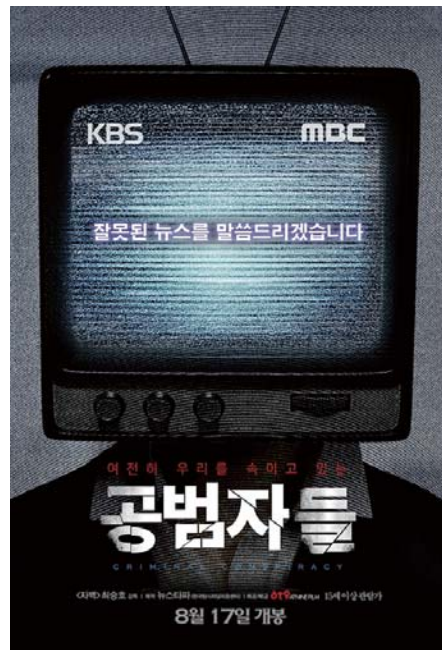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 법원 “허위사실 없어 명예권 침해 아니다”

자발적인 ‘노이즈 마케팅’에 나선 주연 배우들의 장외 활약으로 극적인 홍보 효과까지 거둔 <공범자들>이 내일(17일) 전국 145개 극장에서 개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그제(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 등이 연출자인 최승호 감독과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

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신청인들의 ‘명예권 침해’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 ‘초상권 침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성명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법적 권한의 행사를 결단하라

MBC 파괴의 공범인 방문진 이사를 해임해야

방송문화진흥회의 무책임한 파행 운영이 끝을 모른 채 계속되고 있다. 방문진은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2016년 MBC 경영평가 결과 승인 및 공표 결의건’의 채택을 세 번째로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 여권 이사들의 발목잡기로 안건 처리에 실패했다. 보고서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열린 이사회에서도 구 여권 이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MBC의 고질적인 불공정, 편파·왜곡 보도를 비판했다.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사유로 MBC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법정 제제만 8건에 이른다”며 “원만한 노사관계와 미래지향적 조직 문화 정립을 통해 공영방송사의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MBC 보도 과탄의 책임은 지난해 보도본부장이었던 김장겸 사장에게 있음이 공식 인정된다. 따라서 구 여권 이사들은 김장겸을 보호하기 위해 줄곧 보고서 채택을 미루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영평가보고서 채택은 방문진이 관리·감독하는 MBC의 한 해 경영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일이다. 방문진법 10조에 명시된 방문진의 주요 결의사항이다. 방문진이 보고서 채택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법률이 규정하는 책임을 해태하고 방기하는 일이다.

취임 2년을 맞은 ‘고영주 방문진’의 직무 유기는 심각한지경에 이른 지 오래다. MBC는 지난 10년 김재철·안광환·김장겸 체제를 거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철저히

무너뜨렸다. 정권과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왜곡과 편파보도를 일삼고, 뉴스를 사유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는 극우이념의 마지막 저항 기지로 전락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도 극심했다. 10명의 해고자가 나왔고, 사원 수백명이 부당징계와 전보에 시달렸다. MBC 경영진은 이 같은 횡포를 바로 잡으라는 법원 판결도 무시했다. 한국 언론 사상 최악의 노동 탄압으로 현재 당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고 있다. 방문진은 MBC의 이 모든 파행에 철저히 눈을 감았다. 아니 배후에서 조장하고 묵인했다. 방문진은 이미 존재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식물 기구를 넘어 MBC 몰락의 총체적 공범이다.

방문진을 관할하는 주무 관청은 방송통신위원회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 권한에는 ‘해임권’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오늘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해임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방문진법에 따라 방통위는 방문진의 사무를 검사, 감독할 권한도 갖고 있다. 방통위는 이제 법령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즉각 방문진에 대해 철저한 사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방문진 이사들의 책임 방기와 업무 해태 등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성명 2

불법 대체인력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

대체인력 채용 지시, 수행 모두 형사 책임 물을 것

김장겸 경영진이 오늘 정규직 영상취재 기자를 뽑겠다고 기습적으로 공고를 냈다. 영상취재 기자들이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제작 중단에 돌입한지 이틀만이다. 사측은 170일 파업 직후인 2012년 8월 ‘영상취재부’를 해체한 뒤 신입이든 경력이든 단 한 번도 영상취재 기자를 채용한 적이 없다. 그 자리에는 취재PD로 불리는 대체인력을 꾸역꾸역 채워 넣었다. 그런 회사가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대규모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워 넣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일 회사는 취재기자, 드라마 홍보, 기술 직군도 신규 채용을 공고했다. 현업 실무 부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채용 공고를 갑자기 내놓은 것이다. 노동조합은 올 들어 김장겸 경영진의 공정방송 파괴, MBC 사유화, 제작 자율성 침해에 맞서 총파업을 여러 차례 예고해왔다. MBC 사측은 공정방송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이미 오래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MBC는 법적으로 쟁의사업장이다. 지난 7월 21일 <피디수첩> 피디들의 제작 중단 돌입을 시작으

로, MBC의 많은 조합원들이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사실상 쟁의 행위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급조된 채용 공고는 명백한 불법이다. 노동조합법 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조합은 경고한다. 이번 채용을 기획, 지시한 자는 물론, 채용 절차를 수행한 행위자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현재 MBC는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들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전 현직 경영진은 수사 대상으로 신분이 전환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불법 채용 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7년 8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